

활력이 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 漁港消息

발행경 편집인 孫井植 特務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5-9  
ISSN 1227-7053 TEL. 568-6651~2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568-5595~6  
FAX. 568-6653

## 연내 新港灣 建設促進法 제정

### 辛相佑장관 民資유치 活性化... 圏域별 特色 최대한 살려

해양수산부는 금년내에 신항만 건설촉진법을 제정,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미 계획된 가덕, 광양, 아산항 등 3개 국책사업과 6대 신항만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항만운영 방식도 국유 국영체제에서 국유민영체제로 개선하여 고효율 저비용 구조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낙후된 어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생산과 주거시설이 갖추어진 생활공간

으로 만들기 위해 권역별로 지역특색을 살려 관광, 레저 등과 연계시켜 종합적인 해양활동의 거점이 되도록하여 떠난 젊은이가 다시 돌아오는 활기찬 선진어촌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신상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0월 10일 해양산업연구원 주관한 해양수산부 창설기념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21세기 해양강국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 해양수산부에서는 21세기의 원대한 해양비전을

토대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와함께 신상우 장관은 우리 수산업을 국민식량산업으로 뿌리내려 생산과 가공, 유통기능을 연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근대적인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 해양시대에 걸맞게 수산업 구조를 우선 우리 수역자원에 알맞는 자원보존형 어업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한편, 어선세력을 감축하고 해역별 특성에 맞추어 고소득 다량생산 품종을

집중양식하는 기르는 어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 어항건설 順調 13항14건 竣工

올해 어항시설공사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점없이 순조롭게 진행, 총 60개항 69건 공사중 10월 24일 현재 13개항 14건의 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태풍 진로권에 위치한 소흑산도 위미 현포항 등이 예정대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구계 양포 위도 위

도(준설) 김녕(준설) 광양 남도 녹동 신양 장호 방어진 초도 맥전포 등 13개항 14건의 공사가 준공됐다.

또한 전체공정의 90%이상 공사가 추진된 항은 안목(1차) 오산 사동 구산 축산 현포 소흑산도 어청도 서망 특암 도두 풍남 김녕 삼덕 시산 등 15개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 明年어항 建設豫算규모 1千5百58億8百萬원

### 黨政협의 거쳐 政府案 국회提出

내년도 어항건설예산이 1천 5백 58억 8백만 원 규모에서 정국안으로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로 최종 확정된 내년도 어항건설예산은 농특회계를 포함, 금년대비 5.8%인 85억 6천 9백 만 원이 증액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제1·3종어항 건설예산은 올해보다 6.7%

가 늘어난 1천 3백 65억 5천 8백 만 원이며, 제2종어항은 1백 92억 5천 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도 어항건설은 정비확장을 포함, 계속투자대상 33개항과 보수보강 28개항 등 모두 61개 제1·3종어항에 투자할 계획이며, 제2종어항은 50개항에 투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어항건설사업 목표를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라 미완공 어항을 조기에 완성, 수산업을 둘러싼 국내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태풍 등 재해방지과 어항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유지보강사업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1997년도 어항건설예산 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97예산(안)		'96예산(B)	증감(A-B)	%	비고
	요구	조정(A)				
합계	193,995	155,808	147,239	8,569	5.8	
<일반회계>	73,995	54,374	39,389	14,985	38.0	
제1·3종어항	65,995	54,374	39,389	14,985	38.0	41개항
시설비	54,000	53,134	38,477	14,657	38.1	
부대경비	11,995	1,240	912	328	36.0	
제2종어항	8,000	-	-	-	-	5개항
<농특회계>	120,000	101,434	107,850	△6,416	△5.9	
제1·3종어항	98,500	82,184	88,600	△6,416	△7.2	20개항
시설비	95,500	80,156	86,060	△5,904	△6.9	
부대경비	3,000	2,028	2,540	△512	△20.2	
제2종어항	21,500	19,250	19,250	0	0	50개항
제1·3종어항	164,495	136,558	127,989	8,569	6.7	
제1·3종어항	149,500	133,290	124,537	8,753	7.0	

### 漁港에도 魚市場 건립 施設 民間도 使用 허용

앞으로 어항에도 어시장 등이 건립되고 어항시설 사용이 민간에게도 허용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어항이 어촌 경제권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어항법 개정 시안을 11월까지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4월 국회에 제출

한다는 계획아래 본격적인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정내용에 따르면 어항에 어시장, 수산물직매장, 관광시설 등을 시설해 어항이 어촌경제권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어항 시설의 이용도 제고를 위해

현재 기본 기능 복지시설구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어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어항시설 사용이 공익 목적에 한해 허가토록 한 것을 완화, 민간에게도 어항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또한 어항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항시설의 점용료와 사용료의 징수사용권을 관리자에게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난 10월 23일 일본 宮城縣 仙台市 宮城 산업교류센터에서 개최된 제48회전국어항대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수산업계에 참으로 부러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것은 매년 그랬듯이 장관과 국회의원, 전어련회장, 대일본수산회장 등 이른바 유력인사 3천 5백 여명이 대거 참석했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보다 큰 원인은 그날 논의되고 토의된 내용에 있다.

일본 수산업계가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며 발빠른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건강을 위해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수산물 유통기지이며, 국민의 건전한 휴식의 장으로서의 어항이요, 어촌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협회가 이러한 주장을 제기해 온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어항이 단순히 어선을 정박시킨다는 개념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결국 어촌은 소멸되고 말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수산업은 종언을 고하게 되고 말기 때문이다.

최근 출범한 해양수산부의 명칭에 굳이

## “公企業 정부出捐機關 경쟁하게”

이미 익히 알려진 일이지만 이번 어항대회 역시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높은 혜안이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내년도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현재의 수산청 조직도 대폭 손질하고 있다고 한다. 즉, 국제해양법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신해양질서에 대응하고, 정세변화에 입각한 업무를 재평가하는 한편, 수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 신중히 검토되었던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다름아닌 현재의 '어항부'를 '어항어촌부'로 개편 추진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어항어촌의 정비와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유어대책 등 종합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어항과 어촌을 각기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이다.

이는 그동안 한국어항협회가 누누이 주장해 오던 내용과 다름아니다. 어항의 새로운 개념으로 어항어촌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 개념은 곧 어항과 어촌을 동일시 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아직도 적지않은 사람들이 단순히 배를 정박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항과 항만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산업계의 장래를 생각할 때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용자에 관한 고려나 판단이 전혀 논의의 대상이 되지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이에관한 개념정리를 위해 한마디로 잘라 말한다면 어항은 어민의 것이며 곧 국민의 것이다. 작게는 어민들의 생업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 수산업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사람들이 지역을 형성하고, 자손만대 살아갈 터전이 곧 어항이요 어촌이며, 크게는

'수산'이란 군더더기(?)를 달 필요도 없을 것이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우리나라가 이 풍부한 보고를 포기하지 않는한 어항어촌의 개념이 하루빨리 우리나라에도 정립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의 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10월 9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경쟁력 10% 향상을 천명한 바 있다. 이는 소모품 10%를 절약하자는 운동이 아니고, 작은 정부이면서도 효율성 높은 정부를 꾸려나가는 데 진정한 의미를 두고 있을 것이다.

이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정부업무중 민간이 담당하여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문이 있다면 이를 과감히 이양하고,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 사이에도 경쟁체제를 적극 도입하자는 의미임은 물론이다.

여러 차례 예를 든 바 있지만 뉴질랜드가 바로 이 제도를 도입,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고무시키고 있다.

협회가 그동안 나름대로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고군분투해온 배경에는 정부가 아닌 산하단체로서의 역할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명제는 어항은 어민의 것이며, 곧 국민의 것이란 사실이다. 이러한 명제는 누군가가 충족시켜 줘야할 사항이다. 정부로서는 이렇게 세세한 부분에까지 눈길을 돌리기엔 너무도 할 일이 많다는 점이 앞으로 어항협회 역할의 당위성을 증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

### 국가競爭力 向上도 지원

### 效率性제고 이바지 分明

동 정

“水産業을 국민食糧産業으로 뿌리내리게 할 터”



辛相佑 해양수산부장관  
政策토론회서 基調연설

▲신상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10일 해운산업연구원 주관 「21세기 해양수산업의 진로」를 주제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하여 수산업을 국민식량산업으로 뿌리내려 근대적인 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고 강조, 16일에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오찬간담회에 참석.



孫井植 한국어협회장

▲손정식 한국어협회회장은 10월17일 서울타워호텔에서 열린 「세계정부와 국내행정, 새로운 국제행정의 패러다임 모색, 한국행정의 회고와 전망」에 관한 한국행정학회 창립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 18일에는 협회 주계 체육행사를 개최, 22일에는 일본 宮城縣 仙台市 宮城

산업교류센터에서 개최된 제 48회 전국어항대회에 참석키 위해 출국, 대회참석 후 鹽釜 어항 石卷어항 등 인근지역 어항을 시찰하고 25일 귀국.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10월10일 신한국당이 주관한 재해대책기금마련을 위한 한마음대음악회에 참석, 14일에는 비과세가계저축의 가입증대를 위한 특별행사에 참석하고 창구직원들을 격려.

▲안성봉 한국어선협회장은 10월4일 부산지부에서 전국지부장회의를 열고 「협회 경영합리화 방안」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

▲배환갑 영생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0월17일 통영시 도천동에서 영생비치맨션 신축 모델하우스개장식을 개최.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0월7일 춘천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제77회 전국체전 개막식에 참석, 21일에는 진도군민회관에서 개최된 문화원도지회 문화상 시상식에 참석, 24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한 96년도 통일 정세보고회에 참석.

▲고재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10월8일 조선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명예경제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음, 9일에는 제77회 전국체전 행사장을 방문하고 광주 전남 선수단을 격려, 11일에는 제3회 광주매일 회장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 12일에는 제12회 청소년예방선도 송원문에

백일장에 참석, 15일에는 포항종합제철 광양제철소 5고로 착공행사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0월2일 대한건설협회 이사회에 참석, 14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단회의에 참석, 15일에는 포항종합제철 광양제철소 5고로 착공행사에 참석, 이어 국회 재경위원회 지방감시반 초청 광주 전남북 지역상공인 간담회에 참석, 21일에는 경찰청치안전문위원회 간담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0월15일 서울대학교 개교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17일에는 대한능률협회 조찬 세미나에 참석, 22일에는 전경련 심포지움에 참석.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0월1일 북제주군 군민의날 행사에 참석, 3일에는 한라산 민족혼대제 봉행행사에 참석, 5일에는 범죄예방 제주도 서부지부 창립총회에 참석, 18일에는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생을 대상으로 강연, 21일에는 범죄예방 제주도 중부지부 창립총회에 참석.

▲황금추 동광건설주식회사 사장은 10월7일 춘천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제77회 전국체전 개막식에 참석.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사장은 10월17일 진도지역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직원들을 격려.

孫희장, 제48회 일본전국어항대회에 참석



10월23일 일본 宮城縣 仙台市 宮城산업교류센터에서 개최된 제48회전국어항대회에서 소개받고 있는 손정식 한국어협회회장

인사

▲해양수산부는 최근 인사를 단행했다. △해양안전과장 임기택(10월24일) △국립수산진흥원 연구기획과장 김종규(9월30일)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 장맹수(10월1일), ▲해운산업연구원은 10월15일자로 진유철 전 수산청장을 자문위원으로 발령했다. ▲한국어선협회는 10월15일자로 인사를 단행했다. △완도지부장 홍석규 △부산지부 강점영 △충무부장직무대리 김종열 △인천지부 이진경.

의견

▲정영재씨(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장)의 장남 형주 군이 지난 10월12일 하림각 본관3층에서 화촉을 밝혔다. ▲송재성씨(주식회사성호종합

건설 회장)의 장남 창호 군은 10월26일(토) 오후 2시 삼청동 감사원 강당에서 화촉을 밝혔다. ▲박광훈씨(전 수산청장)의 장녀 혜진 양이 오는 11월6일(수) 오후 3시 30분 삼각지 전우회관(구 육군본부) 예식홀에서 화촉을 밝힌다. ▲김희천씨(전 수산청 과장)의 차남 재영 군이 오는 12월7일(토) 오전 11시 천주교 명동성당에서 화촉을 밝힌다.

변경

▲장봉환씨(전 동방원양개발공사 사장)는 최근 강남구 대치동 소재 주식회사티아산업(부회장)으로 근무처를 변경했다. 전화번호:538-2020.

의미남부

■단체 ▲주식회사삼건사(회장 정덕

용) ▲주식회사우주종합건설(회장 고세진) ▲조흥공영주식회사(사장 박규언) ▲동화건설주식회사(사장 김종배) ▲영진건설주식회사(사장 김규룡) ▲여수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주상용) ■개인 ▲강호석씨(해양수산부 서해어항사무소)

부음

▲박동규씨(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안전과장)가 10월19일 별세했다. 10월21일 해양수산부 장으로 발인, 장지는 충남 서산 선영. ▲서승욱씨(수협중앙회 상무)는 10월23일 부친상을 당했다. 장지는 충남 논산군 가야공면 선영.

漁港·漁村圏域 종합발전積極 추진促求

日, 第48回 全國漁港大會성료 97年 제9차 整備計劃 달성 다짐



제48회전국어항대회가 10월23일 일본 宮城縣 仙台市 宮城산업교류센터에서 개최됐다.

일본 전국어항협회장의 초청으로 전국어항대회에 참석한 손정식 한국어협회회장은 이날 농림수산대신, 연안출신 국회의원, 대일본수산회장, 전어련회장, 전국市町村

어항관계자, 수산관련단체, 어업인 등 총 3천 5백 여명이 집결한 대회장에서 그들이 어항어촌정비사업의 조기실현을 위해 의견을 집결하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과정 등을 참관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요청에 임각하여 여유와 정취있는 공간의 창출 등을

편 살기좋고 활력있는 어항어촌 건설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이번 대회가 일본 수산업의 새로운 전개를 기약하는 장이 될 것을 기대하며 △제9차어항정비계획의 추진과 예산의 증액확보 △어항어촌 종합정비사업 등의 확충 강화와 예산의 증액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 어항어촌권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어항의 다양한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한

확보 △제6차해안사업5개년계획의 추진과 예산의 확보 △어항 등대의 설치촉구 △어항 관련 사업에 관한 지방재정부담의 경감 등의 의안과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나라 어업은 금년 7월 20일 바다의 날 제정과 함께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응하는 태세를 확립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어항이 국민의 건강에 불가결한 단백질의 안정적 공급을 비롯하여 어촌 등 지역사회의 건전한 유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정비 추진에 전력을 다하여 왔으나, 국제해양법조약의 비준에 수반한 새로운 해양질서의 형성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새로운 고도이용과 활력있는 지역발전 등에 관한 시책을 조속히 확립하여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즉, 어획 가능량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기르는 어업을 더욱 촉진하고, 경영환경

日수산청 개편계획 漁港部를 漁港漁村部로

일본은 내년도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국제해양법 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신해양질서에 대응하고 정세변화에 입각한 업무를 재평가하는 한편 어업을 둘러싼 여러가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수산청 조직을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일본 수산청은 특히 어항어촌의 정비와 지역활성화 그리고 유어대책 등의 종합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의 어항부를 어항어촌부로 개편하고, 계획과에 유어어촌활성화대책실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추진기로 했다.

선언문

의 악화에 대응하는 어업경영대책의 확립, 어촌 생활환경의 정비 및 국민의 다양한 요청을 수용하고 풍요롭고 윤택한 공간의 창출 등에 관한 시책을 조속히 강구해 나가는 것이 긴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배려하면서 어항어촌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어항의 다양한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어항어촌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본형 식생활의 유지를 도모하면서, 밝고 살기좋은 어촌건설을 추진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관점에 입각하여 책정된 계획으로서 우리나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향한 기반확립을 위하여, 이의 추진을 지역주민은 물론 전체 어업인이 강력히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어항관계자는 그 총의로서 신해양시대의 초년도인 1997년도에는 제9차어항정비장기계획의 추진을 중심으로 하여 어항어촌의 정비 활성화에 대한 제반 시책의 확충 강화 실현을 기대하고자 하는 바이다.

1996년 10월 23일 제48회일본전국어항대회

# 第9次 颱風진로권 및 海外어항 漁村시찰 나서

## 모두 25名 日本·대만·싱가포르등 3個國 어항對象

한국어항협회는 10월 29일 부터 11월 6일까지 8박9일동



안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3 개국에서 제9차 태풍진로권 및 해외어항어촌 시찰을 실시한다.

이번 시찰에는 해양수산부와 전국 각 시·도 어항어촌 관계자를 비롯 시공업체 용역업체 등에서 25명이 참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新長崎어항, 富岡어항, 二江어항, 宜野灣어항, 泊어항과 대만의 基隆항, 八斗子어항 그리고 싱가포르의 紐蘭항과 어촌 등을 시찰국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현지에서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

기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날로 늘어나는 항만적체를 앞당겨 해소키 위해 정부로부터 국책사업으로 지정받은 가덕도신항을 비롯 광양, 아산항의 방파제 준설 등 정부사업 부문에 공구분할방식을 적용, 공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이같은 항만적체를 해소키 위해서는 재정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항로 방파제 투기장 등 항만기본시설외에 전용부두와 하역장비, 물류시설 등의 상부시설과 컨부두 일반부두 등에도 민자를 적극 유치해 항만개발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항만 개발사업의 경우 방파제 투기장 배후수송시설 등 기본시설에 선투자자가 크게 소요됨에 따라 오는 2001년까지 매년 5천억원 이상의 재정을 신항만개발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 輕微한工事 범위上向조정

交通部 규제緩和 내년중 토목 건축공사의 경우 3천만원 미만으로 돼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가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또 정부의 건설관련 업무중 집행에 공권력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된다.

건설교통부가 10월12일 국회에 제출한 규제완화처리결과자료에 따르면 건교부는 건설업면허 없이도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시공이 가능한 경미한 건설공사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건의에 대해 내년도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건교부는 또 건설시장 개방으로 단체가입이 임의화될 경우에 대비해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건설업면허 신청 접수 및 심사, 면허증 수첩 교부, 건설업양도인가 신청 접수, 건설공사도급금액하한의 결정권 등 업무를 위탁해 줄 것을 요구한 대한건설협회의 요구에 대해 대외적인 공권력이 필요한 업무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내년도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시·도 건설협회의 독립법인과 추진요구에 대해서는 시장개방화에 따라 단체가입 임의화는 건설산업기본법안에 반영됐지만 협회의 설립은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설비공사업 등 업종별로만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역별 독립협회의 설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漁港을 漁村經濟圈 中心地로 處理가공·流通施設 대폭 擴充

### 海洋水産部 어촌계 122개圈域化 지원

정부는 수산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산물처리 가공시설 및 수산물 유통시설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또 어항을 어촌지역 경제권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어항종합개발 계획을 내년말까지 수립키로 했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수산부문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르면 수산물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키 위해 내년부터 처리저장시설 1백77개소와 산지가공시설 1백15개소, 종합가공단지 1개소를 오는 2004년까지 확충키로 했다.

수산물 유통개선을 위해서는 수산물직판장 1백32개소와 내륙지공판장 5개소, 수산물종합판매장 16개소, 수산물도매시장 1개소를 내년부터 새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지역을 생산기반시설,

유통가공시설, 어선계류시설 등 지역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하고 현재 1천6백 여개의 어촌계 지역을 내년부터 1백22개 권역으로 나누어 2004년까지 개발 완료하는 한편 어촌활성화를 위해 어민복지회관 49개소와 3개 어촌관광지를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연안지역 어선정박 및 해일 등으로

부터의 피해에 대비키 위해 오는 98년부터 어항을 어촌지역 경제권의 중심지로 본격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어항종합개발계획을 내년말까지 수립키로 했다.

이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오는 2004년까지 전국적으로 인공어초시설 30만7천ha를 확보하는 한편 종묘배양장시설도 19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 항만工事도 工區分割發注 적용 基本시설 除外 民間참여 活性化

정부는 최근들어 크게 약화되고 있는 항만적체를 조기에 해소키 위해 그 동안 철도 도로 등에 적용돼 온 공구분할방식을 가덕도신항 등 국책 항만공사에도 적용

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한 재정난 해소 차원에서 항로 방파제 등 항만기본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최대한 민간자본을 유치, 항만건설을 활성화시켜 나가

### 港灣개발 集中투자 明年부터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총31조원의 사업비를 항만개발부문에 집중투입, 현재 68%에 불과한 시설확보율을 90%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다.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요항만의 적체해소 및 우리항만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키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민자 16조원을 포함, 모두 31조원의 사업비를 항만개발부문에 집중투자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앞으로의 항만개발은 기존 항만의 확충보다는 신항만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획기간중 신항만개발에 18조원, 기존항만 확충에 1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신항만 개발사업비의 60% 이상은 민자를 유치,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기존 주요항만의 개발사업비를 포함해 연간 재정투자비를 최소한 1조2천억원 수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재정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1조원 규모의 민자를 적극 유치해 나가기로 했다.

### 建設市場개방 對應 제도改善추진

#### 대형工事 가급적 分割발주

건설시장개방과 관련, 중소기업 보호육성 차원에서 정부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하에 건설관계 각종 제도개선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추경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0월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시장 개방 이후 중소기업 보호대책을 마련,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석 장관은, 정부는 중소기업체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장기계속 계약제도를 개선해 대형공사는 가급적 분할발주하고 특히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개방대상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공동도급제도를 계속 시행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 저희 새한월드여행사는 '91년부터 해외 INCENTIVE연수 전문업체를 담당해 왔습니다. (수협중앙회, 선정)
- ▲ '96년도 일본 및 호주 뉴질랜드 해외선진 어항어촌시찰단을 안내하였습니다.
- ▲ 고객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공정적 사고·적극적 행동

#### 영업안내

1. 해외여행알선 (개인, 단체, 효도관광)
2. 여권및각국비자수속 (무료대행신속정확)
3. 국제선항공권판매 (세계각국)
4. 해외유학,연수안내 (세계각국)
5. 호텔및리조트예약 (세계각국)
6. 해외교통편의제공 (기차, 선박, 버스, 리무진등)
7. 해외신혼여행 (결혼기념등)
8. 성지순례안내 (안식교, 가톨릭, 천주교, 불교등)



### (주) 새한월드여행사

代表理事 許 順 寧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13-21호  
TEL: (02)538-0898(대) FAX: (02)552-8044





# 기생충 감염

열에 약해 풀이면 예방가능  
야채는 흐르는 물에 씻도록

기생충은 우리 몸에 붙어서는 벌레로서 오염된 음식이나 물, 손에 의해 알이 몸안으로 들어와 장, 간, 기타 신체 각 기관에서 살게 된다.

회충은 가장 잘 알려진 기생충으로 비교적 습기가 많은 지방과 인분의 처리가 비위생적인 지역에 많이 발생한다. 채소 과일 물 등에 붙어있던 애벌레는 십이지장에서 꺾꽂이를 벗고 소장벽을 거쳐서 혈관을 통하여 간과 폐를 지나 식도를 따라서 다시 소장에서 발육한다. 감염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약 60-80일이 걸리며 성충의 수명은 약 1년 정도이다. 감염시는 권태감, 복통, 빈혈, 식욕부진, 구토, 변비,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치료는 좋은 약제의 개발로 간단하지만 문제는 예방이 중요하다. 회충란은 햇빛과 건조 고온에 약하며, 섭씨 60도 이상에선 몇초내에 죽는다. 과일 채소 등은 흐르는 물에 3번이상 씻으면 충란을 제거할 수 있다. 또 손을 깨끗이 하고 정기적인 대변검사도 필요하다.

요충은 충란이 입을 통해 십이지장에 이르러 부화되고 서서히 아래로 내려가 팽창부위에서 성충이 되며 이 시기까지 45일 정도 걸린다. 요충은 충란이 붙은 먼지를 흡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염되고 가족원 사이에 전염되기 쉬우므로 치료는 가족 전체가 함께 구충제를 복용해야 한다.

십이지장충은 약 1cm 정도의 기생충으로 회충과 같은 경로로 들어오거나 직접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데, 이 경우 그 부위가 몹시 가렵고 때로는 두드

러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편충은 3-5cm 정도의 크기로 충란이 인체밖으로 나와서 온도와 습도가 적당한 경우 3-6주 후에 애벌레가 되고 입을 통해 팽창부위에 정착하여 성충이 되며, 이 시기는 약 3개월이 걸린다. 감염시 신경질, 불면증, 식욕감퇴,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생기며 심한 경우 대장염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촌충은 길이가 2-10m 정도로 알이 소나 돼지똥 속에 들어가서 애벌레가 되며 돼지고기를 익히지 않고 먹었을 때 감염된다.

간흡충은 1-3cm 정도로 제1숙주는 다슬기, 제2숙주는 붕어, 잉어 등으로 사람이 날로 먹었을 경우 몸에 들어와 소장벽을 뚫고 간에서 기생한다. 감염시 만성적 경과를 취하여 간염증세를 나타낸다. 페디스토마는 1-1.5cm 정도의 크기로 제1숙주는 다슬기, 제2숙주는 민물게와 가재 등이다. 이들을 날것으로 먹었을 경우 소장벽을 뚫고 폐에서 기생한다. 감염시 기침이 나며 가래도 많이 나오기도 한다.

이상의 기생충 감염에 있어서 보편적인 예방방법은 위생적인 화장실처리, 분변을 비료로 사용하지 말고 배변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야채는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씻어 먹고 생선이나 가재, 게 등은 날것으로 먹지 말며, 돼지고기 쇠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며, 질병만연 지역에서는 반드시 물을 끓여 먹어야 한다.

#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1)

## 제1장 漁港의 各種施設과 工種區分

### 1. 1 개설

#### (1) 어항이란

대체로 어항이라 하면 도시가 아닌 촌스러운 장소로서 어선이 정박 출입하고 있는 포구나 부두의 인상이 강하고 생선의 경매로 분주한 위판장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천혜의 해안과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옛부터 어업에 종사하고 어식민족으로서 번영하면서 연안일대에 어업촌락을 형성하여 왔다.

연안어로 시절에는 어선도 소형이고 대부분은 내해, 내만, 포구 등을 어선의 계류 양륙장으로 이용하여 왔다. 그러다 보다 원거리 어장의 개발, 어선의 증대 등으로 어항의 필요성을 재촉했고 과학의 발달과 함께 인공적인 어항건설이 시작되어 이제 어업의 핵심으로서 어항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 (2) 어항의 역할

일반적으로 어항과 항만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어느 것이든 OO항으로 부르고 있으며, 항만이라도 선어의 취급이 많을 경우에는 어항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어항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항구를 어항으로 설명한다. 어항법 제2조에서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 근거지가 되는 어항구역과 어항시설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어항은 식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어업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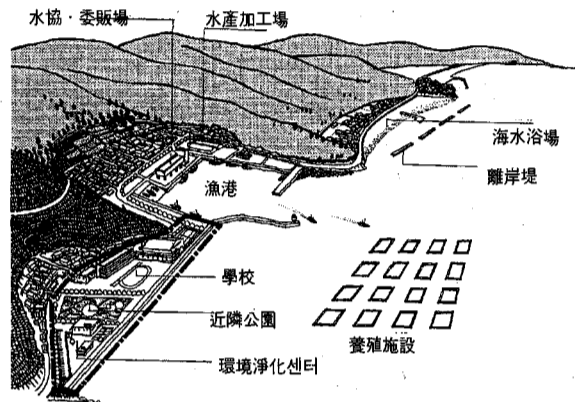
근거지이다.

이와같은 어항은 어선의 안전한 출입항 및 정박, 계류, 어획물의 양륙, 출어준비, 어획물의 처리, 냉장, 가공, 수송, 어선원의 휴양, 시장활동 등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의 생활기반으로서 어촌지역사회의 핵이되어 활력있는 지역사회 생활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으로 되어 있다.

#### (3) 어항공사의 특징

어항의 수는 전국에 약 2,500 여개가 있어 그야말로 전국 방방곡곡에 존재하고 있어 어촌지역사회의 핵으로서 개발과 정비가 시행되고 있다. 어항은 역사적으로 자연의 지형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착한 형태로 발전해온 것이 많기 때문에 큰 것에서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규모의 범위가 넓고, 박지가 좁은 소규모어항의 비율이 많다. 관리자 별로 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관리하는 제1종 어항이 89개,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제2종 어항이 324개, 내무부에서 관리하는 비지정항인 소규모어항이 2,000 여개이다.

어항은 주로 선어를 취급하는데 최근에는 활어의 취급도 증가하고 있다. 그 때문에 계류시설이나 수송시설 등의 기능은 그 취급에 적합한 것이 건설된다. 계류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은 어선이 주체이고 어획이나 양식 등의 관리작업에 적합하도록 독특한 형상을 하고 있다.



(그림 1.1.1) 정비된 어항어촌의 개념도

어항의 역할	내 용
(1) 생산활동의 기지로서의 어항	①어획물의 양륙장 ②출어준비의 장(어구의 준비, 급유, 급수, 어선의 수리, 어선원의 휴양 등) ③어민의 주요한 재산인 어선의 안전한 정박의 장 ④중앙시장 등의 생산기반의 장
(2) 유통기지로서의 항	①하역 및 저장시설 ②소매지 등으로 출하하는 수송터미널 ③수산물공급의 기지
(3) 어촌 등 지역사회 핵으로서의 역할	①어촌주민의 생활기반 ②어업관련업종을 주도하는 지역경제발전의 기반 ③도시 밖의 어촌과 외부시장을 잇는 교통, 정보의 기지 ④어민교육을 위한 기점
(4) 휴식의 장으로서의 역할	①연안의 자연경관이나 지방의 어업문화의 교류를 통하여 바다의 문화를 계승하는 장 ②해양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장 ③바다를 체험하는 학습의 장

(표 1.1.1) 어항의 역할

《본 란에서는 지난 105호까지 83회에 걸쳐 「어항계획수립의 요령」을 연재하였습니다. 그동안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호부터는 계속해서 「어항공사 시공관리의 첫걸음」을 연재하오니 많은 애독 바랍니다.》

## 생활정보

내년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같은 소득인인 경우 올해보다 평균 10% 정도 줄어든다. 근로자 세금부담 감소를 위해 이번 세법에선 소득공제 폭과 세액공제 폭을 높였다. 이에따른 세금감소 폭은 소득이 낮을수록 감소율이 높은 하향상향 방식이다. 예컨대 4인가족의 경우 연간소득이 1천2백만원이면 세금이 5만5천원에서 1만6천5백원으로 70% 줄어든다. 반면 연간소득이 4천8백만원인 근로자의 세금부담은 5백58만원에서 5백28만원으로 5.4% 만 줄어들게 된다. 이에따른 근로소득세 경감액은 연간 8천억원 가량 될 것이라고 재경원은 추산했다. 다만, 지난 94년에 전면 개편됐던 세율(10-40%)이나 인적 공제폭 등은 이번엔 손대지 않았다. 바뀐 근로소득세법의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 ◆소득공제 인상

지금은 연간소득 4백만원 이하분은 1백%, 4백만원 초과분은 30%를 각각 소득공제(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금액)를 해주고 있다.

이것을 내년엔 연간소득 5백만원 이하분은 1백%, 5백만원 초과분은 30%를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고쳤다. 또 소득

## 근로세법 이렇게 바뀐다

# 근로자 세금부담 평균 10%줄어

공제 최고한도를 8백만원에서 95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지금의 20%에서 내년엔 30%로 높아진다. 또 세액공제 최대한도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였다. 이에따라 소득 특별 인적공제를 제하고 산출된 산출세액이 90만원인 근로자라면 (50만 x 45%)+(40만 x 30%)=34만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즉 산출세액은 9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55만5천원의 세금만 내면된다는 것이다.

### ◆세액공제 인상

실제 세금을 까주는 세액 공제 폭도 높였다.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에 대해 4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올해와 같지만

### ◆면세점 인상

## 근로소득세제 개편내용

(단위: 원)

구분	96년	97년
세율	1천만원이하 10% 4천만원이하 20% 8천만원이하 30% 8천만원초과 40%	동일
소득공제	4백만원이하 전액 4백만원초과 30% 최대공제한도 8백만	5백만원이하 전액 5백만원초과 30% 최대공제한도 9백만
세액공제	산출세액 50만원이하분 45% 산출세액 50만원초과분 20% 최대공제한도 50만	산출세액 50만원이하분 45% 산출세액 50만원초과분 30% 최대공제한도 60만
인적공제	기초공제 1백만 배우자공제 1백만 부양가족공제 1인당 1백만	동일
면세점	1인가족 771만 2인가족 842만 3인가족 914만 4인가족 1,057만	871만 942만 1,014만 1,157만

### ◆배우자 교육비 공제

지금은 본인과 자녀, 형제자매의 교육비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배우자의 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즉 배우자가 대학에 다닌다면 연간 2백30만원까지, 초중고교에 다닌다면 교육비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이 1백만원(기본공제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현재 2명까지만 공제해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고쳤다.

단, 교육비 공제혜택을 주는 형제자매 대상은 본인과 동거하는 형제자매에 한정된다.

## 내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소득세 부담(4인가족 근로자 기준)

연간 소득	현재 세액	개선 세액	감소액
11,000	16.5	0	△16.5
12,000	55	16.5	△38.5
14,000	132	93.5	△38.5
16,000	209	170.5	△38.5
18,000	307	247.5	△59.5
20,000	467	373	△94
22,000	627	513	△114
24,000	899	681	△218
27,000	1,380	1,101	△279
30,000	1,980	1,680	△300
32,000	2,380	2,080	"
36,000	3,180	2,880	"
40,000	3,980	3,680	"
48,000	5,580	5,280	"
50,000	5,980	5,680	"
60,000	8,720	8,320	△400
70,000	11,720	11,320	△400

## 생활정보